

# 광주·전남 수출 58억달러 돌파...전년비 16% 증가

## 무협 광주전남본부 '4월 수출입동향'

市, 5.4% ↑ ...車부품·반도체 영향  
道, 고유가 속 점유·화학제품 호조

지난달 광주·전남 지역 수출이 자동차와 석유제품 수출 호조에 힘입어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발표한 '2026년 4월 광주·전남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의 수출은 58억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9% 증가했다. 수입은 40억4천만 달러로 0.9% 늘었으며 무역수지는 17억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은 수출 규모 7위, 광주는 10위를 차지했다.

광주지역 수출은 17억3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4% 증가했다. 수입은 9억3천만 달러로 4.8% 늘었으며 무역수지는 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와 반도체, 자동차부품 수출이 증가한 반면, 타이어와 냉장고 등 일부 품목은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5억2천만 달러로 25% 증가했고 자동차 수출은 8억2천만 달러로 13.7% 늘어나며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두 품목이 차지하는 광주 수출 비중은 전체의 77.1%에 달했다.

자동차 수출에서는 친환경차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가솔린 차량 수출은 30.2% 감소했지만 고유가 영향으로 하이브리드 차량 수출이 42.7% 증가했고 기타 화물자동차는 19.5% 늘었다. 전기자동차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하며 친환경차 중심 수출 구조 전환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중국 수출은 감소했지만 싱가포르·대만·말레이시아 등으로의 반도체 수출과 캐나다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세를 뒷받쳤다.

전남지역 수출은 40억8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1.0% 증가했다. 수입은 31억1천만 달러로 6.9%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9억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광산물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87.4% 급증한 반면, 공산품과 농림수산물 수출은 각각 4.9%, 2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판과 선박 수출은 감소했지만 석유제품과 정밀화학원료 수출이 크게 늘어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세부적으로는 경유·제트유·휘발유 등을 포함한 석유제품 수출이 17억9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1.7% 증가했다. 기타 석유화학제품 수출도 1억6천만 달러로 30.9% 늘었다. 이들 두 품목이 차지하는 전남 전체 수출 비중은 47.7%로 절반에 가까웠다.

수출 대상국별로는 호주·필리핀·베트남 등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호주로의 수출은 석유제품 수출 증가 영향으로 6억4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0.6% 증가했다. 필리핀 수출 역시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497.4% 급증하며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인태호기자



중소기업 경제도약 퍼포먼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경제도약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모두의 창업' 열기...광주·전남도 4천500여명 신청

중기부 '공모' 전국 6만3천명 몰려  
비수도권 접수자 전체 53.4% 달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 마감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모에 광주·전남 지역에서 서만 4천500여건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호남권(광주·전남·전북) 전체 신청 건수는 7천408건으로 전체 신청자의 11.8%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 신청 건수는 4천569건으로 전체의 7.3% 수준에 달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적으로 총 6만2천944명이 신청하며 정부 부처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공식 플랫폼 누적 접수자는 141만8천600명을 넘어섰고 회원

가입자는 13만5천36명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신청자는 3만3천628명으로 전체의 53.4%를 차지해 수도권 비중을 넘어섰다. 중기부는 올해 예비창업패키지의 비수도권 신청 비율(30.0%)과 비교해 23.4%포인트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신청자 가운데 39세 이하 청년 도전자는 4만2천738명으로 68%를 차지했다. 20대 이하 신청자만 42.3%에 달했다. 최연소 신청자는 9세, 최연장 신청자는 90세였다. 외국인 신청자도 540명 포함됐다.

분야별로 일반·기술 트랙에서는 정보기술(IT) 분야 신청자가 28.4%로 가장 많았고 라이프스타일(21.9%), 교육(7.9%) 등의 순이었다. 로컬 트랙에서는 생활 분야 신청자가 64.1%로 가장 많았고, 음식료(F&B)가 27.1%가 그 뒤를 이

었다. 특히 인공지능(AI) 관련 창업 아이디어도 두드러졌다. 일반·기술 트랙 신청서 가운데 AI 키워드가 포함된 아이디어는 1만5천339건으로 전체의 29.8%를 차지했다. 한 줄 아이디어 키워드 분석에서도 AI가 1만1천500건(42.2%)으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

중기부는 전국 멘토 기관의 검증을 거쳐 다음 달 중 창업인재 5천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된 인재에게는 AI 솔루션과 그래픽처리장치(GPU), 규제 스크리닝(규제사항 사전검토) 등이 제공된다.

아울러 2차 '모두의 창업'을 추진하고, 선발되지 않은 도전자에게도 제도권 멘토링과 지역별 선배 창업자 특강 등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태호기자

## 광주디자인진흥원 '디자인비즈광주' 운영 본격화

### 상담·비즈니스 매칭·지원 통합 플랫폼

(재)광주디자인진흥원은 19일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공공기관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라인 디자인 비즈니스 플랫폼 '디자인비즈광주' 운영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디자인비즈광주'는 디자인이 필요한 기업·기관과 지역 디자인전문기업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디자인 협업 플랫폼이다. 이용자는 플랫폼을 통해 디자인 상담, 비즈니스 매칭, 지원사업 공고 확인 및 신청, 디자인기업 정보 조회 등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플랫폼의 주요 기능은 ▲디자인기업 정보 제공 ▲디자인 상담 신청 ▲비즈니스 매칭 ▲지원사업 공고 확인 및 신청 등이다. 이용자는 브랜드, 시각디자인, 패키지, 홍보물, 제품디자인 등

필요한 디자인 분야에 따라 적합한 디자인기업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 또는 협업을 신청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디자인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 공공기관, 일반회원 등 수요자와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디자인 전문기업이다.

디자인기업은 기업정보와 포트폴리오를 등록해 자사의 전문 분야와 수행 사례를 홍보할 수 있으며, 수요기업은 필요한 디자인 분야에 맞는 기업을 찾아 상담과 협업을 진행할 수 있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비즈광주'를 통해 디자인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연결을 강화하고, 지역 디자인산업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인태호기자

## 농어촌공 '농촌공간계획 쇼트폼 공모전' 접수

7월24일까지...대상 등 총 10편 선정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공사와 한국농촌계획학회가 주관하는 '농촌공간계획 쇼트폼 공모전' 출품작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공모전은 농촌공간계획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전달하는 영상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농촌공간 정책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모전에 응모할 수 있다. 개인 또는 3명 이내 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30초 이상 60초 이내 분량의 영상에 농촌공간계획과 관련

된 내용을 자유롭게 담아 제출하면 된다. 영상 제작에는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할 수 있고, 순수 창작물이라면 표현 형식에 제한은 없다.

접수 기간은 7월24일 오후 6시까지며 참가자는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게시한 뒤, 소통24 누리집과 한국농어촌공사 누리집 공고문에 안내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전문가 심사와 국민 온라인 투표 등을 거쳐 9월 중 대상 포함 최종 수상작 10편을 선정할 예정이다. /임재만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60415-중-211304호

# 건강검진

## 매일 체크 ✓ 행복 체크

예약 및 문의 062)363-4040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광주)

